

(대림절 둘째 주일)

1부 09:30 인도: 1부 홍순진 목사
2부 11:30 2부 이종백 목사

- * 전주 | 반주자
- * 예배의 부름 | 시편135:3 | 인도자
- * 개회송 | 찬양대
- * 예배기도 | 인도자
- * 찬송 | 3장 | 다함께
- * 성서교독 | 116(구주강림 2) | 다함께
- * 사도신경 | 다함께
- 영광송 | 365장 | 다함께
- 중보기도 | 1부: 김남진 집사
2부: 박영복 장로
- 응답송 | 찬양대
- 오늘의 말씀 | 열왕기하20:1~6 (구약p. 598) | 인도자
- 찬양 | 1부: 온 맘 다해 | 중등부
2부: 날 지으신 주님 | 할렐루야 찬양대
- 설교 | 벽을 무너뜨리는 기도! | 박장덕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 찬송 | 주가 일하시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다함께
이제 역전되리라
- * 봉헌 및 찬송 | 감사드리세 주께 | 다함께
- * 봉헌기도 | 박장덕 목사
- 교회소식 | 박장덕 목사
- * 찬양 |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 다함께
- *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 후주 | 찬양대

~~~~~  
◎ 다음주 기도: I부: 강도순 집사 II부: 신상균 장로  
~~~~~

15:00 인도: 이종백 목사

- 찬양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박분교 권사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출애굽기13:17~22 | 인도자
- 설교 |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 | 이종백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 찬양 | 다함께
- 축복기도 | 이종백 목사

◎ 다음주 기도: 박재옥 권사

수요기도회

19:00 인도: 박장덕 목사

- 찬송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권민행 집사
- 찬양 | 제7여전도회원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마가복음8:27~38 | 인도자
- 설교 | 두 종류의 길 | 박장덕 목사
- 기도 | 다함께

◎ 다음주 기도: 김영련 집사 찬양: 제8여전도회

가정예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찬송	221장	27장	429장	455장	487장	453장
말씀	전4:7-16	전5:1-7	전5:8-20	전6:1-12	전7:1-14	전7:15-29

본문: 열왕기하19:30~34
제목: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열심을 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선행하는 은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습니다. 내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더 단단합니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굳습니다. 내 열정보다 하나님의 열정이 더 강력합니다. 내 헌신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더 진합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경험, 전통, 지금 신앙으로 다 해결할 수 없고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여러 종류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회개가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时时때때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활동에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안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사랑의 열심이 얼마나 깊고 깊고 높고 넓은지 모릅니다.

왜 내 신앙이 환경과 형편에 따라 갈팡질팡 흔들리고 변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큰 질병을 만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떨리는지 아십니까? 삶이 기쁨과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다저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기쁨과 감정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지, 그건 인간 본성에 근거를 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 종교심을 신앙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교성, 인간 본성에 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치료받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이 행복해진다는 신앙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신앙은 좀 미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울 수가 있고, 몸이 아프고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곤경, 딜레마에 빠 집니다. 즉 예수를 믿을 때는 희망이 있었지만, 뜻대로 안 되면 그만 절망에 빠 집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면,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복이시고, 영광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처음 시작은 절망일 수가 있지요. 내 처지와 형편이 절망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희망입니다.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시작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1:1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22: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을 보십시오. 다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대(16편),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여호와와는 살아계시니...(시편18편),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시편23), 여호와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시편28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복이 있기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결과도 복이 되게 하시고, 약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십니다. 내 믿음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집에서 교회 올 때 교회 안에 선행하는 은총이 먼저 와 있습니다. 교회서 집으로 갈 때, 집에 선행하는 은총이 이미 와 있습니다.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할 때도 직장 가면 그곳에 선행하는 은총이 와 있습니다. 집으로 퇴근해 갈 때 이미 와 있다. 집으로 올 때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마지막 날까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의 열심에 다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장덕 목사(2022. 11. 27. 주일 낮 예배 말씀)